

“마지막 시험”

창22:1-14

시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Test 이고, 다른 하나는 Temptation 즉 유혹입니다. Temptation 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Test 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를 견고히 세워나가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Test 는 필요합니다. 어느 연구소에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시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40 년 이상이 지난 때에 나타나셔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Test 의 시간입니다.

1.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는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얼마큼 포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마지막 시험이 바로 100 세 주신 이삭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각자에게는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는 자기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부분이 바로 우리를 눈 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결혼일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현명하데 해당되는 문제만 나오면 눈먼 소경이 되어서 이성도 신앙도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블랙홀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일 수도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사랑도 많고 고민도 많이 했지만 믿음에 대한 것, 즉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고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고민 할 때 고민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지면 잠시도 머뭇거리고 않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2.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믿음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손해를 본다고 해도 온전히 예수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모든 일이 다 잘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더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부여 잡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일이 잘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목표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 번제를 드리는 것이 자신에게 현실적 아픔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욥의 고백과 같이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라는 고백과 순종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결정은 포기와 순종입니다. 믿음의

처음 단계는 얻는 단계입니다.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3. 믿음의 근거가 되는 부활의 신앙

“(창 22:5)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구절을 통해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인다고 해도 다시 살려 주실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갈등을 해결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책임 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히 11:18-19)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은 오직 말씀 하나 붙드는 신앙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부활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고난을 통해 점검되는 믿음

우리에게 편안한 삶만 계속 된다면 믿음을 사용할 기회가 없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부딪쳐 봐야 신앙이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화를 내며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튀어나오는 불평과 원망을 결사적으로 누르며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결국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에 부딪혀 보아야 합니다. 돈이 떨어져 보아야 합니다. 병들어 보아야 합니다. 사업이 바닥을 쳐 봐야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여건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가장 소중한 미래였고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받는 시험은 진정한 시험(Test)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깨달은 것은 비록 실수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다고 해도 진심이 아니시고 훈련시켜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5.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창 22:8-9)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모든 준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아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6. 실천하는 믿음

“(창 22: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믿음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이며, 믿음은 실천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마치 믿음인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비전과 불안 앞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기에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행 통장에 잔고가 없다면 안절부절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불안에서 몰아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특별한 순서를 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먼저 나와 기도하며 정성과 준비를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이 작동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믿음은 검증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 줄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 내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천하는 믿음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지금 “왜 네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절대 쉽게 가질 수 없습니다. 고난을 분명히 통과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염려 걱정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 믿음에 근거하여 순종함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죽어도 살고 망해도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과정 속에서 단계별 최종 테스트를 통과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믿음을 위해 포기한 것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포기 이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데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3.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각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4. 각자가 당했던 Test 와 Temptation 의 예를 하나씩 들어주시고, 이에 대한 여러분의 당시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체득한 Test 와 Temptation 의 각자만의 구별 방식이 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5. 주일 설교시간에 목사님께서 나누셨던, 김종필 선교사의 간증을 서로 다시 나눠 보시고, 여러분들 안에 들었던 마음과 결단을 각자 나눠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